

정보의 가격인식

유경희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부회장

달포쯤 되었을가? 필자는 참석차 미국의 보스턴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회의를 끝내고 바로 워싱턴을 들렀다. 목적은 Legi-Slate, Inc.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회사를 방문해서 도대체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새벽에 보스턴을 떠나서 워싱턴의 덜레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11시경에 방문처에 도착하였다. 부사장 마주키 씨가 마중나와 주었고 오찬도 함께 하였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레지슬레이트”란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연습을 두어 시간동안 하면서 한국에서의 유용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 회사는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의 자회사로서 약 100명의 직원이 미국 상·하원에서 개최되는 본회의, 각

종 위원회, 각종 청문회 등의 모든 회의를 생생하게 중계하여 주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매일 40명의 기자가 회의장에 나가서 회의 내용을 컴퓨터에 담아서 호스트로 온라인 송신을 한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보통 2시간 후면 온라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한다.

혹시나 해서 “KOREA”란 주제를 가지고 있는 회의내용을 검색하였던 바 방문하던 날 바로 전날에도 22건의 법안이 직·간접으로 한국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었다. 누구에 의해서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현재 어느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용이하다. 미국의 국회나 각주의 주의회에서는 매일 같이 수없이 회의가 진행된다. 여기서 우리와 연관되는 법안이 얼마나 어떻게 심의 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효

과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즉 어제밤에 어느 청문회의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 오늘 10시경 온라인으로 연결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언제쯤 이 정도로 발전할 것인지 막연하기만 하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에피소드 한가지...일본의 어느 자동차 회사의 전무가 2년전, 한창 일본 자동차 미국 수출에 관한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있을때, 워싱턴에 와서 이른바 로비를 하려고 왔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일본인은 로비에 관한 초심자였던 모양인데 워싱턴에 도착해서 유력한 로비리스트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소개받은 곳이 레지슬레이트였다고... 여기서 자동차 관련 청문회에서 어느 미국의원이 일본에 대해서 고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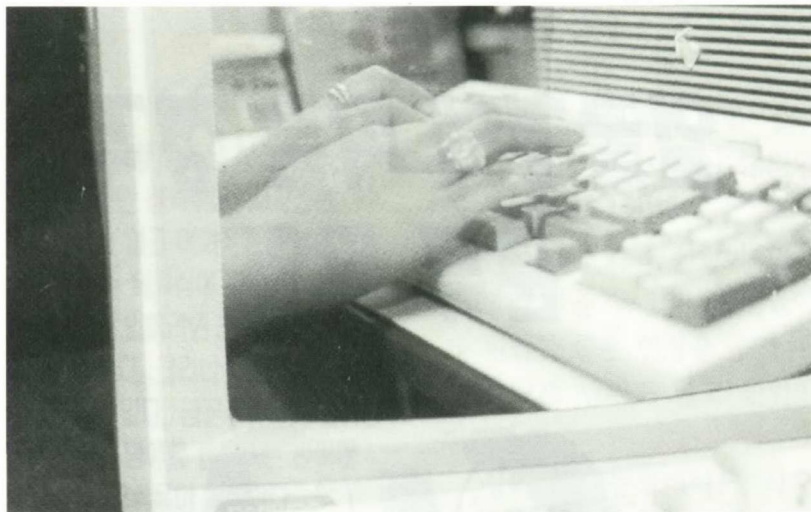
한 발언을 한 내용을 발견하고 프린트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그 청문회의 회의록을 프린트 받는 요금을 물어보니 4천 2백달러였다고 한다. 로비는 커녕 이것만 프린트해서 귀국하였다고 들었다.

사실 말이지, 이 데이터베이스는 너무 비싸다. 연간 무제한 사용료가 1만불이나 되니까 우리돈으로는 800만원이 넘는다. 보기에 따라서 이것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레지슬레이트는 철저히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6천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인의 상식으로서의 정보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안되어 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빌린책 돌려주면 바보다.”라는 말도 있다. 손에 무언가 쥐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하면 무언가 손해본 느낌을 가지도록 습관화 되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보의 대가가 아니라 서비스의 대가라고 강변하더라도 서비스의 대가마저 지불한다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가 못하다. 영어단어의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일반적으로 서비스라는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서비스란 말뒤에 “차지”란 말이 붙어서 서비스 대가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란 말의 의미는 대가는 지불하되 싸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비스란 공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어느 술 집 간판에 버젓이 쓰여져 있다. “안주는 서비스”라고..

정보란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접하자 말자 자기 서랍속에 고이(?) 간직해 버리기 때문에 유통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보가 유통되기 쉽게 가공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의 중요성이 잘 인식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을 3D업종 처럼 기피하기만 한다. 이래서야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결국 사장 되거나 공중에 흘러버려서 “한국의 정보를 미국이나 일본에서 찾아야 하는” 수가 허다하다.

정보를 기록하는 사람, 기록된 정보를 보고 유통되기 쉽게 가공하는 사람, 또한 가공하는 기준(기록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을 만드는 사람, 모두가 활발하여야 데이터베이스산업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상당량의 정보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전혀 축적하는 일은 하지도 않고 멀티미디어화만 하려는 경우를 요즘 흔히 볼 수가 있다.

무언가 어색하다. 초고속에 치우친 나머지 모든 데이터베이스도 초고속화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인듯 하다. 우선 문자정보만이라도 축적을 많이 하여두고 볼 일이 아닌가? **DC**